



# 풍요로운 농촌의 건강

## 단감의 고장, 경남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지난 9월 27일, 기자는 대풍을 맞은 풍요로운 전원에 펼쳐진 황금 물결을 바라보며 일로 부산으로 달렸다.

누렇게 익은 배 이삭들은 풍년가를 구가하는 농부들의 흐뭇한 표정과 함께, 기자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정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 × ×

경남지부에 도착한 것이 오후 1시경, 취재 스케줄에 따라 同行하기로 되어있던 검진팀이 이미 현지로 출발한 뒤여서 河成美 국장과 張在晟 서무과장만이 기사를 받게준다.

경남지부는 농어촌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 健協 13개 지부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부중의 하나다.

경남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4단계 작전 계획을 세워 일을 하고 있었다.

첫째, 1단계로는 시·군보건소와 협의하여 대상지역선정과 일정을 결정한 후 홍보방법 등을 관계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했다. 2단계 작전으로는 반(郡)회보에 사업소개를 게재, 리·통장 회의시 사업취지설명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업을 독려하고 요식업조합, 이비용사조합, 다방조합 등을 통한 조합원들을 홍보토록 했으며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안내 방송 수시 실시한다. 그리고 홍보반이 검사 실시이전에 현지에 출장하여 안내문 배부를 확인하고 방송으로 독려한다는 것이다.

제 3단계로는 사업과장을 반장으로한 현지검사반을 편성, 현지에 파견하며 제



르뵐

# " " " " " "

## 검진 현장을 찾아서...

### 김해군 진영읍을 가다

4단계로는 사후관리로서 행정 관서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꾀하고 검사결과 심각한 유소건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1차 통보를 하며, 수검후 수검자의 만족도와 요망사항 등을 체크하는 등 일사불란한 체계와 계획으로 검사사업에 임하고 있었다.

또한 현지 출장하여 검사에 임하는 관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는 홍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어서 현대식장비와 친절한 상담 및 검사업무를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후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河成美국장은 역설한다.

× × ×

기자가 현지 김진반(김진반장 金鉉鉉 경남지부 사업과장)을 추적하여 당도한 곳이 단감으로 유명한 경남 김해군 진영

읍(進永邑) 부평리에 소재한 읍사무소 2층 회의실이었다.

상주인구 2만 2천 3백여명의 조그마한 진영읍은 4천 5백 30세대의 가구와 13개 里·洞 4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농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읍소재지로 비교적 부유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곳이다.

평화스러운 정경이 아담한 전원 도시 그대로였다.

때마침 기자가 도착했을 땐 10호태풍이 부산지방을 휩쓴 뒤라서 읍이나 군직원들이 홍수방지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을 때였다. 더구나 김해 평야는 낙동강의 하류에 속해 있는 곳이라서 태풍피해, 홍수로 인한 침수가 2, 3일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예비군 민방위대등

이 동원되어 피해방지 작업을 해서인지 는 몰라도 기자가 취재할 때는 수검자가 약간 뜬 날이었다.

하루전 검진팀이 검사한 김해군 二北面만 하더라도 검사반이 점심을 굶을 정도의 검사자들이 들이닥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취재기자가 오니 검사자가 뜬다고 金昌鉉 반장은 꺾꺾 웃는다.

읍사무소측에서는 여사무원이 계속 건강검사 안내를 앰프를 통해 4면팔방에 하고 있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비전염성 만성질환, 즉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부산대학병원의 협조하에 건강종합검사를 진영읍사무소 회의실에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하략」

유창한 말솜씨로 안내방송을 하는 여직원도 신이 나는지 연상 웃음을 띠고 있다.

進永邑長 金德永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통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들 있지요. 그리고 이런 농촌에서는 의료혜택을 받기가 참으로 힘들니다. 사실말이지만 웬만한 병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이 고작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하는 건강검사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몰랐던 병을 早期에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도

복지국가의 혜택을 톡톡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렴한 검사 수가는 국민에게 베풀어지는 의료혜택이지요.』

진례면에서 검사를 받으러온 安秉國(46세·남)씨는 이렇게 검사 소감을 털어 놓는다.

『저는 술이 조금 과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사가 자주나고 배가 항상 더부룩했지요. 이번 기회에 간염검사를 해보고 뇨검사, 심전도 검사도 전부해서 몸의 이상 유무를 체크,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또한 진례면에서 온 金英姬(33세·여)씨는,

『면직원 부인의 소개로 왔어요. 전체적으로 몸이 약하고 해서 전종목검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더구나 여자는 자궁암 검사를 년 1회씩 꼭해서 자궁암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데 아직 한 번도 안했거든요. 더구나 어제검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친절하고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정말 만족합니다. 하루빨리 검사결과가 기다려지네요.』

× × ×

金昌鉉 반장의 검사팀은 정말 열심이였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가가호호 방문안내, 이장회의때 홍보요원을 파견해서 사업개요 설명등 열성이였다.

그리하여 검사첫날보다 그다음 두번째 날에 더 많은 검사의뢰자가 모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검사한 사람이 인근 사람을 유도, 검사받도록 권유 한다

(p.48에 계속)

끈 고름이 나오고(Urethritis) 치료하지 않으면 6월 이내에 치유되거나 또는 만성보균자가 되지만 요도는 좁아지고 아침이면 점액량 분비물이 수개월간 계속 해서 나온다.

나) 여자: 잠복기는 2~8 일이고, 처음에는 소변은 잘나오지 않으면서 자주 요의를 느낀다. 그러나 여자의 80%가 이러한 요도염 증상이 경하거나 아주 없다.

#### (6) 후유증

● 불임증: 남자는 정관에 손상을 입게 되고 여자는 나팔관을 폐쇄되어 남녀 다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게된다.

● 관절염: 임질이 생긴지 1~3 주 후에 갑자기 또는 천천히 관절염이 생긴다. 80%는 허리 관절이 침범되며 무릎 발목들의 관절에 특히 많이 생기지만 어느 관절에도 생길 수 있다.

● 안염: 관절염이 생긴 환자의 10~20%에서는 화농성이 아닌 무균성 결막염이 생긴다. 성인에서는 임균으로 생기는 화농성 전염은 드물지만 신생아는 생후 72시간 이내에 눈의 주위가 붓고 화농성 결막염이 생겨 각막에 궤양을 만든다.

● 임신부가 임질을 앓고 있을 때에는 임균이 태아의 눈에 들어가 눈을 멀게 한다.

#### (7) 치료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보건사회부 보건교육과 제공〉

#### 〈p. 36에서 계속〉

는 것이었다. 요는 검사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자는 부산으로 되돌아 오면서 혼자 속으로 뇌까려본다. 역시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검진 사업이라면 도시보다 농촌에, 그것도 순박한 농어촌 주민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 ■ 유모어 극장

##### ■ 베스트 셀러

여비서: 어머니, 사장님두…….

여태 그 베스트 셀러를 안 읽으셨어요? 나온지 1년이나 됐는데…

사장: 이봐, 혹시 단테의 신곡을 읽었나?

여비서: 아니요?

사장: 허허 그책은 나온지가 6 백년이나 지났는데…….

##### ■ 구경거리

교수대로 끌려가는 살인범, 자기를 앞질러 달려가는 구경꾼을 향해 거만하게 이죽거렸다.

「젠장, 경치게도 성미 급하지 않으면 서둘러봐도 소용없어. 내가 교수대에 올라가야 구경하지.」